

##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원자재가격, 경기침체 우려가 상승압력을 상쇄 -

### 목 차

I. 원유

II. 곡물

III. 금속

(첨부)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포지션 차트

## 원자재가격, 경기침체 우려가 상승압력을 상쇄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6월 에너지, 농산물, 비철금속 등 전부문 하락(전월말 대비)

- 에너지 비중이 높은 S&P GSCI(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지수는 9.8% 하락. (하위 부문별로 에너지 -8.8%, 농산물 -15.7%, 산업금속 -13.8%, 귀금속 -2.6%, 축산물 -0.2% 등).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Index) 지수는 8.0% 하락
  - 美 천연가스(-33.4%), 주석(-23.7%), 니켈(-20.1%), 소맥(-20.1%), 아연(-19.3%), 구리(-12.6%), 납(-12.6%), 알루미늄(-12.3%), 美 휘발유(-10.6%), WTI(-7.8%), 브렌트(-6.5%) 등 전품목 하락

### ■ [전망] 주요 원자재가격은 6월 들어 경기침체 우려로 조정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하반기 공급불안이 보다 완화될 경우 하락조정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

- 유가 : 재고 감소 등 상승압력이 존재하나 최근 통화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가 부상함에 따라 정점론과 함께 방향 전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 러-우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성수기 이후 수요가 둔화되며 유가 하락 가능성
- 곡물價 : 가격부담 지속, 양호한 수급 전망, 통화긴축 등으로 곡물가격의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측불가능한 날씨 변수가 관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다시 열릴 경우 하방압력이 강화될 가능성
- 비철금속價 : 타이트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증가, 달러강세 등으로 당분간 비철금속 가격의 조정양상이 이어질 전망. 과거 3%대의 세계경제 성장률 하에서는 구리, 알루미늄 가격이 부진한 양상

####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6.30일 기준)

	6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WTI	114.3	104 (+2)	94 (-)	96 (+4)	91 (+4)
옥수수(\$/부셸)	7.584	8.00 (+0.25)	7.70 (+0.45)	7.45 (+0.45)	7.15 (+0.35)
소맥(\$/부셸)	10.108	12.00 (-)	11.14 (+0.81)	9.80 (+0.40)	9.20 (+0.47)
구리(\$/톤)	9,025.2	9,967 (-34)	9,817 (-17)	9,542 (-)	9,417 (-)
알루미늄(\$/톤)	2,585.8	3,300 (-100)	3,200 (-25)	3,150 (-67)	3,084 (-67)

주: 1) 6월 평균값(average).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표 1〉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sup>1)</sup>

		'21년 평균	'22년 평균	5/31	6/30	전월말 대비(%)	전년말 대비(%)	연중최고 <sup>2)</sup>	연중최저 <sup>2)</sup>
Index	CRB	209.22	289.23	316.54	291.15	-8.0	+25.3	329.59(6/9)	232.37(1/3)
	S&P GSCI	517.32	713.40	786.45	709.23	-9.8	+26.4	853.27(3/8)	558.47(1/3)
	에너지	229.53	350.05	405.31	369.63	-8.8	+46.5	434.77(6/8)	250.00(1/3)
	농산물	414.77	528.64	562.85	474.53	-15.7	+6.6	607.01(5/17)	440.66(1/3)
	산업금속	456.60	534.09	508.21	437.91	-13.8	-12.3	757.84(3/8)	433.94(6/24)
Oil & Gas	WTI(\$/배럴)	68.08	101.77	114.67	105.76	-7.8	+40.6	130.5(3/7)	74.27(1/3)
	두바이(\$/배럴)	69.01	103.10	117.10	114.99	-1.8	+50.4	132.47(3/9)	75.62(1/3)
	브렌트(\$/배럴)	70.95	104.94	122.84	114.81	-6.5	+47.6	139.13(3/7)	77.04(1/3)
	휘발유(\$/배럴)	89.13	136.57	171.38	153.29	-10.6	+63.8	181.692(6/6)	92.84(1/3)
	천연가스(\$/mBtu)	3.723	6.044	8.145	5.424	-33.4	+45.4	9.664(6/8)	3.638(1/3)
Agriculture	소맥(\$/부셸)	7.020	9.931	10.875	8.688	-20.1	+12.7	13.40(3/4)	7.355(1/7)
	옥수수(\$/부셸)	5.819	7.254	7.535	7.438	-1.3	+25.4	8.27(4/29)	5.8475(1/3)
	대두(\$/부셸)	13.747	16.224	16.833	16.750	-0.5	+26.1	17.84(6/9)	13.32(1/3)
	쌀(\$/cwt)	13.34	15.90	17.55	16.43	-6.4	+12.3	18.155(5/16)	14.35(1/18)
	원당(\$/파운드)	17.88	18.93	19.40	18.83	-2.9	-0.3	20.51(4/14)	17.6(1/10)
Metals	금(\$/온스)	1,799.0	1,876.1	1,837.4	1,807.3	-1.6	-1.2	2,070.5(3/8)	1780.35(1/28)
	구리(\$/톤)	9,293.5	9,748.3	9,447.5	8,258	-12.6	-15.0	10,845(3/7)	8,122.5(6/24)
	알루미늄(\$/톤)	2,485.9	3,079.9	2,787	2,445.5	-12.3	-12.9	4,073.5(3/7)	2,402(6/30)
	니켈(\$/톤)	18,466.9	27,540.4	28,392	22,698	-20.1	+9.4	55,000(3/7)	20,175(3/9)
	아연(\$/톤)	3,007.3	3,792.3	3,913.5	3,157	-19.3	-10.7	4,896(3/8)	3,136(6/30)
	납(\$/톤)	2,189.4	2,261.3	2,182	1,907.5	-12.6	-17.2	2,700(3/8)	1,883(6/30)
	주석(\$/톤)	31,172.4	39,731.4	34,670	26,451	-23.7	-31.9	51,000(3/8)	22,980(6/24)
친환경에너지 관련 품목									
Solar	폴리실리콘(\$/kg)	24.57	32.40	32.28	35.13	+8.8	+20.5	33.2(3/2)	29.16(1/3)
Batteries	코발트(\$/톤)	51,577.1	76,067.6	74,000	70,460	-4.8	-0.1	78,000(3/7)	61,000(1/3)
Renewable	에탄올(\$/갤런)	2.11	2.16	2.16	2.16	-	+1.1	2.2(2/7)	2.16(1/3)
CO <sup>2</sup>	탄소배출권(€/톤)	53.63	83.17	83.66	89.88	+7.4	+12.0	97.88(2/8)	55.47(3/2)

주 : 1) WTI 및 휘발유, 천연가스는 NYMEX 근월물 가격, 브렌트유는 ICE 근월물 가격,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농산물은 CBOT, ICE 근월물 가격, 금속, 코발트는 LME 근월물 가격(금은 현물가격), 폴리실리콘은 PV Insights의 All Grades 주간 평균 현물가격, 탄소배출권은 ICE 근월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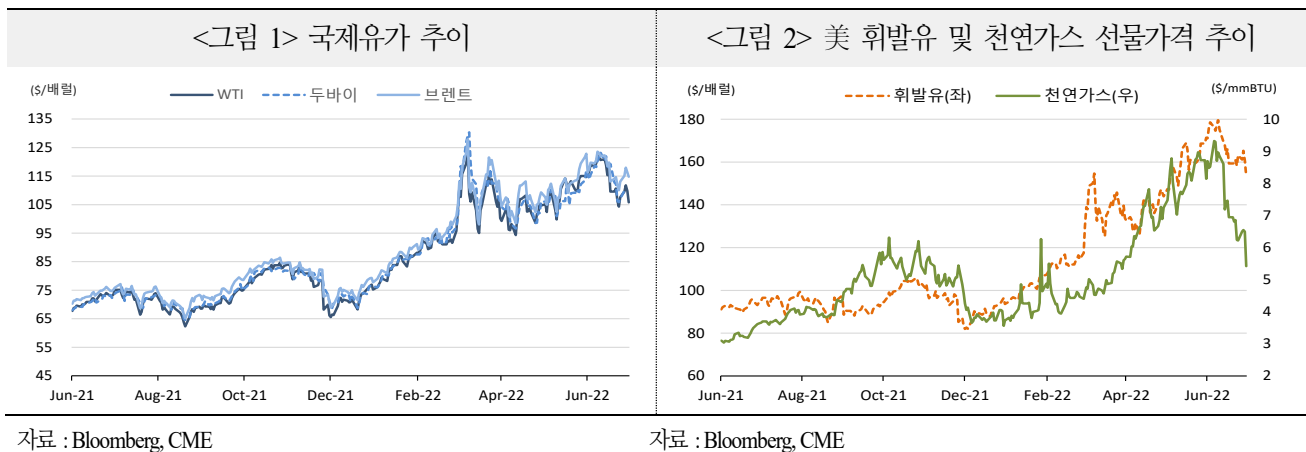
2) 연중 최고 및 최저는 '22년 1월 3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장중가격 기준. 적색은 전월중 기준 기록 경신을 의미.

자료 : Bloomberg

## I. 원유

### □ [동향] 6월 국제유가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7개월 만에 하락

- WTI 선물가격, 6.30일 \$105.76으로 전월말 대비 -7.8%
  - OECD 재고 감소(8년래 최저) 등 타이트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 달러 강세, 러시아의 원유수출 호조, 고유가 부담 등으로 7개월만에 하락
  - 美 휘발유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가격 부담으로 하락(\$153.29, -10.6%). 美 천연가스는 공급부족에도 러-우 전쟁 선반영, 차익실행 등으로 급락(-33.4%)



### □ [주요 변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논의, 이란 핵협상, OPEC+ 생산정책 등

〈표 2〉 강세/약세 요인별 구분

강세 요인	약세 요인
對러시아 추가 제재 공급부족 지속	美 연준 금리인상 가속화 경기침체 및 수요둔화

#### ○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논의

- 추가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美 바이든 대통령 제안)\*, 금 수입금지 등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계획
  - \* 일정가격 이상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 시 보험 인수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금지 등
    -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가격상한제 부과 시 러시아가 G7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로 대응해 글로벌 공급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
- 한편 佛 마크롱 대통령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산유국들의 증산을 호소.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이란·베네수엘라산 시장복귀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

## ○ 이란 핵협정(JCPOA) 협상 재개 예정

- EU의 중재 하에 미국-이란 간 JCPOA 협상이 카타르에서 조만간 재개될 전망. 이란 제재 완화 시 일일 100~150만배럴 내외의 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지난 수개월 간 지속된 팽팽한 의견 대립에 비추어 협상 타결 여부는 불확실

## ○ 미국, 유류세 한시 감면을 추진

-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연방정부의 유류세(휘발유 18센트, 디젤 24센트로 모든 주 동일) 부과를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이른바 “Gas tax holiday” 입법 조치를 공식 요청
  - 연방정부 유류세 외에도 각주에 깔린당 최소 8.9센트(알래스카)에서 최대 57.6센트(펜실베이니아)가 부과되는 주정부의 유류세 인하도 함께 요구

## ○ OPEC+, 기존에 합의된 생산정책 유지. OPEC의 5월 생산량 감소

- 국제사회의 증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OPEC+는 6.30일 8월 생산량을 기존 계획(일일 64.8만배럴 증산)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시장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
- OPEC의 5월 생산량은 일일 2,850만배럴로 전월대비 17.6만배럴 감소. 내전에 따른 리비아(-18.6만배럴)의 감산이 크게 영향. 이라크(-2.1만배럴), 이란(-2만배럴), 나이지리아(-4.5만배럴), 베네수엘라(-2천배럴), 기니(-2천배럴) 등도 가세(OPEC secondary source)
  - 리비아는 정정불안으로 6월중 최대 일일 110만배럴의 생산차질(120만배럴→10만배럴) 발생

## □ [전망] 재고 감소, 공급 제약 등 상승압력이 건재하나 최근 통화긴축 강화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상함에 따라 정점론과 함께 방향성 전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

-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재확전 되지 않는 이상 유가는 여름철 성수기 고점(2~3Q) 이후 수급여건이 개선되며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Citi)
  - 美, 사우디 등 여유생산여력이 있는 산유국이 아직 충분히 증산하지 않고 있으며,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나 이란, 베네수엘라 제재완화에 따른 공급확대도 기대
  -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제안은 잠재적인 공급 위험요인이나, 아직 합의된 바가 없고 러시아가 중국, 인도 등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
- 성수기에 석유제품 수요는 높지만, 고유가로 인한 소비위축이 점차 확산할 소지

〈표 3〉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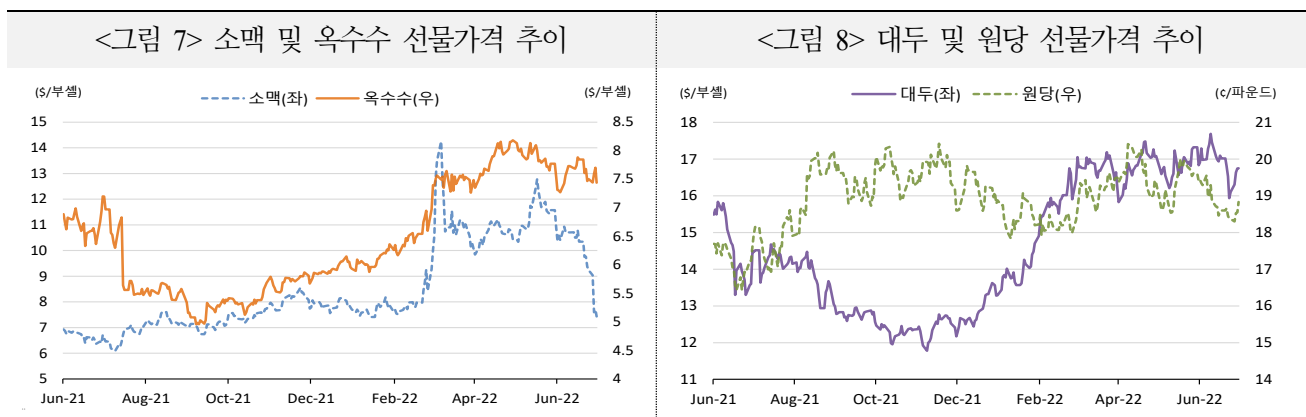
	6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WTI	114.3	104 (+2)	94 (-)	96 (+4)	91 (+4)
브렌트	117.5	107 (+2)	97 (-)	98 (+3)	94 (+4)

주: 1) 6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 곡물

### □ [동향] 6월 주요 곡물가격은 소맥이 급락하는 등 일제히 약세

- 6.30일 CBOT 소맥 선물가격은 5개월 만에 큰 폭 하락 전환
  - 美 겨울밀 수확 가속화, 우크라이나 수출재개 기대감, 투기자금 쏠커버링 등으로 러-우 전쟁 직전 수준으로 하락(\$8.6875, 전월말 대비 -20.1%)
  - 옥수수는 가격부담 증대와 수요감소 우려, 美 콘벨트의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2개월 연속 하락(-1.3%). 대두도 남미 작황호조 등으로 2개월 연속 약세(-0.5%)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Bloomberg, CBOT

### □ [주요 변수] 미국 경작면적 및 작황, 세계 수급 전망, 주요국 기상여건, 투기동향 등

- 美 옥수수 경작면적 확대. 전체적인 작황은 작년 동기보다 개선
  - 금년 미국의 옥수수 경작면적(추정)은 8,992만 에이커로 3월 전망보다 50만 에이커 증가, 반면 대두 면적은 8,833만으로 263만 감소(USDA)
  - 美 6월초 옥수수 및 대두 재고는 전년동기 대비 +6%, +26%, 소맥은 -22%. 한편 겨울밀의 수확률은 41%로 예년 평균(35%)을 상회
  - 美 옥수수의 양호 및 우수(good and excellent) 비율은 6.26일 67%로 작년 같은 기간 (64%) 대비 개선, 대두의 비율도 65%로 전년동기 대비 5%p 개선. 봄밀의 양호 및 우수 비율은 59%로 전년동기(20%) 대비 대폭 개선
- '22/23년 세계 곡물 생산 및 기말재고 양호할 전망. 고가격으로 수요는 위축될 소지
  - 美 농무부 6월 WASDE(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에 따르면 세계 곡물생산은 0.9% 감소하겠으나 절대 규모면에서는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할 전망

- 소맥은 美·라케 생산호조가 우크라이나와 인도의 차질을 상쇄, 옥수수과 대두는 남미 생산호조가 타 지역의 부진을 일부 상쇄
-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 특히 옥수수는 현재의 가격대에서 수요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주요국 소맥 재배지역에서의 건조한 기상여건 지속, 반면 美 콘벨트 날씨는 양호
  - 美 남부평원의 가뭄비율은 6월초 75%까지 낮아진 후 6월말 80%로 재차 상승, 북부평원은 6월초 87%에서 월말 6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고수준. 유럽의 주요 소맥생산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극심한 가뭄이 최근까지 지속
  - 반면 세계 최대 옥수수 및 대두 생산지역인 美 콘벨트(중서부)는 적절한 강우와 기온 등 우호적 환경 형성. 다만 6월 중순 이후 건조한 기후가 확산하는 양상
- 투기성 자금은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
  - CBOT의 옥수수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6.21일 34.8만계약으로 북반구 파종이 시작된 5월 초 이후 25% 감소, 소맥과 대두의 순매수포지션 역시 같은 기간 중 각각 12%와 6% 감소
  - 글로벌 긴축 가속화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투기성 자금의 매수포지션 정리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 [전망] 가격부담 지속, 양호한 수급 전망, 통화긴축 등으로 곡물가격의 하방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측불가능한 날씨 변수가 관건
- 생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하락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미 가격에 반영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다시 열릴 경우 하방압력이 강화될 가능성
- 다만, 7~8월 중 美 콘벨트의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곡물가격이 연쇄적으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표 4〉 주요 투자은행들의 곡물 가격 전망(\$/부셸)

	6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옥수수	7.584	8.00 (+0.25)	7.70 (+0.45)	7.45 (+0.45)	7.15 (+0.35)
소맥	10.108	12.00 (-)	11.14 (+0.81)	9.80 (+0.40)	9.20 (+0.47)
대두	16.901	16.00 (+0.05)	15.50 (+0.25)	15.60 (+0.40)	15.25 (+0.25)

주: 1) 6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 III. 금속

#### □ [동향] 6월 비철금속 가격은 전 품목 하락

- LME 니켈 선물가격, 6.30일 톤당 \$22,698로 전월말 대비 -20.1%
  - 러시아發 공급 불안 불구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및 달러강세 압력, 중국 등 전기차 판매 부진, 인도네시아 증산 전망 등으로 하락. 구리 가격도 주요국 제조업 지표 및 실물경제 부진, 부동산 시장 위축, 통화긴축 강화 등으로 12.6% 하락
  - 알루미늄은 중국의 5월 생산량 증가, 부동산시장 등 실물수요 감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12.3%). 주석은 반도체 가격하락, 가전제품 수요감소,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재고 증가 등으로 큰 폭 하락(-23.7%)
-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 압력 강화 등으로 하락(\$1,807.3, 전월말 대비 -1.6%)



자료: Bloomberg, LME

자료: Bloomberg, LME

#### □ [주요 변수]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중국 경제지표, 품목별 주요 이슈 등

-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심화
  - 미국 5월 CPI는 8.6%(yoy)로 '81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 6월 FOMC에서 정책금리가 75bp('94년 11월 이후 최대폭) 인상된 가운데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 영국 5월 CPI도 9.1%(yoy)를 기록(4월 CPI 9.0%)함에 따라 물가 억제를 위해 8.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BoE의 추가 금리인상 예상(현 기준금리는 1.25%로 5회 연속 인상)
- 중국 5월 경제지표가 둔화했으나 봉쇄 완화로 일부 회복
  - 중국의 산업생산은 봉쇄 여파로 4월 -2.9%(yoy)에서 5월 0.7%로 회복.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는 5월 49.6→ 6월 50.2로, Caixin 제조업 PMI는 48.1→ 51.7로 반등
  - 중국 주요 70개 도시 5월 신축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0.2% 하락(9개월 연속 하락세)



- 구리 : 칠레 생산량 감소 추세. 페루 광산 공급차질 지속
  - 칠레 4월 생산은 42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8.9% 감소(10개월 연속 감소세). 칠레 Codelco社의 Ventanas 제련소(칠레 2위 규모)는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유지보수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등 공급차질 발생
  - 페루 Las Bambas 광산 지역주민들의 도로 사용료 요구 시위로 도로가 재봉쇄. MMG社의 생산 및 자재 운송 재개일이 당초 6.11일이었으나 한달 가까이 지연
- 니켈 : 타이트한 수급여건 지속. 인도네시아 증산 가능성
  - 6.24일 LME 재고는 6.7만톤으로 전주대비 1.6% 감소('21년 4월 26만톤 대비 -74%)
  - 인도네시아 정부가 '24년까지 제련소 53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증산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는 저품위(Class2) 니켈에 해당. '22년 공급부족 지속 전망(BoA)
- 알루미늄 : 금년 생산량 전년과 비슷한 수준(+0.7%) 전망
  - 금년 1~4월 세계 생산량은 전년보다 1% 낮은 수준이었으나 연간 생산량(ytd)은 0.7% 증가한 6,78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SpotLightMetal)
    - 중국의 재활용 알루미늄 공급 1,300만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용차 중심에서 e-모빌리티로의 전환으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주석 : 인도네시아 정부, 주석 수출관세 인상 예고
  - 전체 주석 주괴의 98%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석에 대한 수출 관세는 현재 3%. 주석 가격 상승 시 세수를 확대할 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

□ [전망] 타이트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증가, 달러강세 등으로 당분간 비철금속 가격의 조정양상이 이어질 전망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6대 비철금속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둔화(PBOC, 5.5%에 미달한 4.7% 예상)로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어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 가능성
  - 경기침체 우려로 구리 가격이 6월 중순 16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한 가운데 과거 3%대 세계경제 성장률 하에서 구리 및 알루미늄 가격은 부진한 양상(B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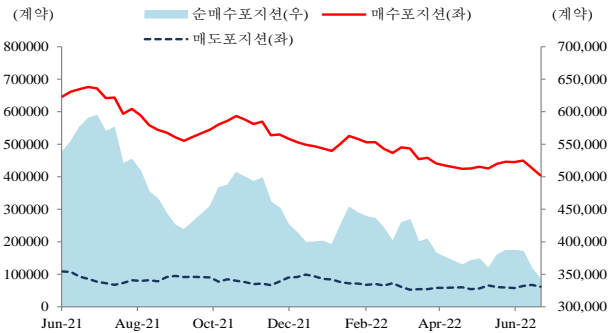
〈표 5〉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요 기초금속 가격 전망(\$/톤)

	6월(a) <sup>1)</sup>	'22.3Q(f) <sup>2)</sup>	4Q(f) <sup>2)</sup>	'23.1Q(f) <sup>2)</sup>	2Q(f) <sup>2)</sup>
구리	9,025.2	9,967 (-34)	9,817 (-17)	9,542 (-)	9,417 (-)
알루미늄	2,585.8	3,300 (-100)	3,200 (-25)	3,150 (-67)	3,084 (-67)
니켈	25,725.1	27,500 (-250)	26,000 (-)	23,500 (-1,500)	22,667 (-1,500)
아연	3,571.0	3,750 (+50)	3,625 (-25)	3,542 (-100)	3,417 (-125)

주: 1) 6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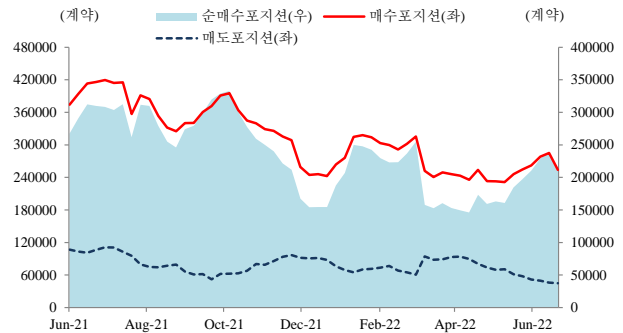
(첨부) 주요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Non-commercial) 포지션 Charts

〈NYMEX WTI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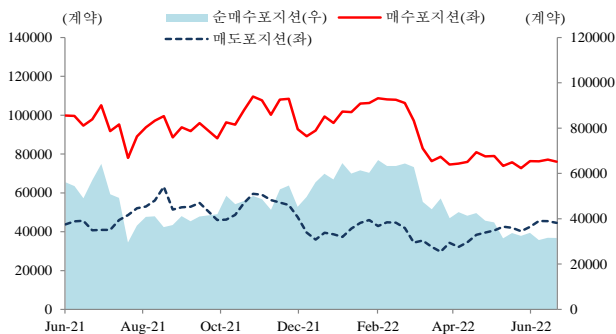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브렌트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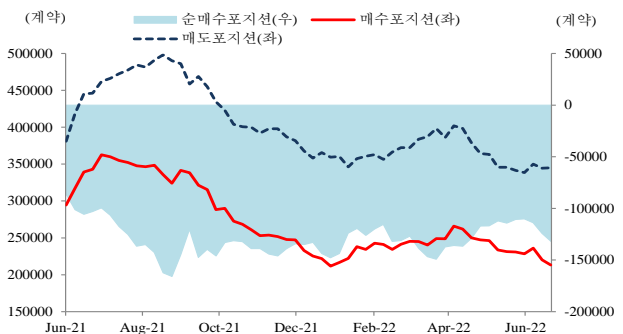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휘발유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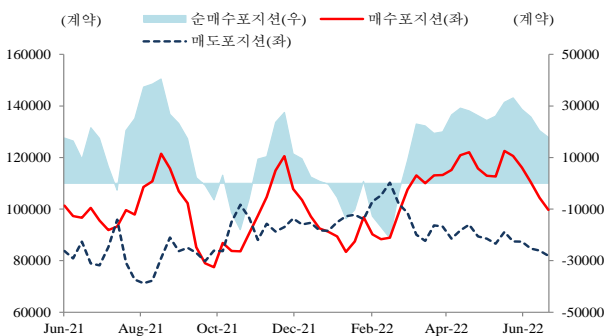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NYMEX 천연가스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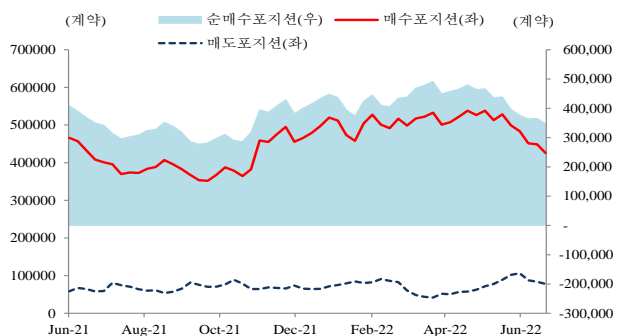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소맥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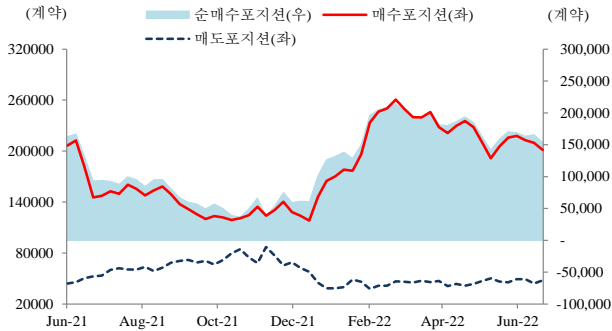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옥수수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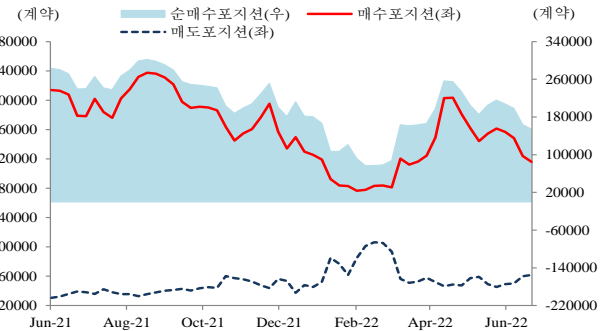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BOT 대두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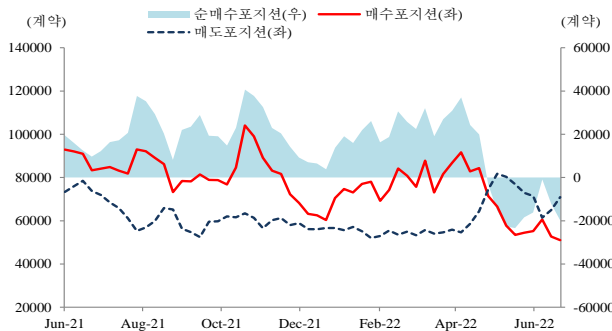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원당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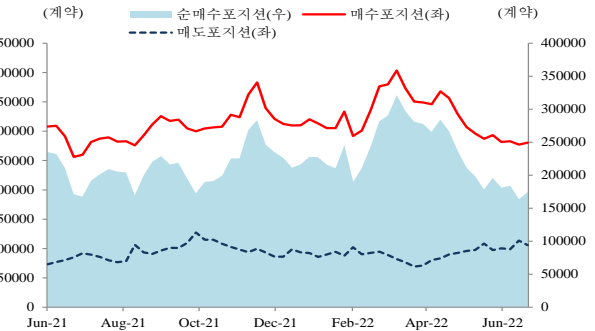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구리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금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혹은 kimhj@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